

건조물문화재 재난관리 실태조사 연구

A Study on Disaster Management Field Survey of Cultural Heritage Monuments

신 호 준* · 최 윤 정** · 구 원 회*** · 백 민 호****

Shin, Ho-Joon · Choi, Won-Hoi · Koo, Won-Hoi · Baek, Won-Hoi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양양산불에 의한 낙산사화재, 2008년 국보1호 승례문 방화사건 등 건조물 문화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건조물문화재 중에서도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를 1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건조물문화재의 지정구분, 인적 및 안전관리적 요소, 주변환경적 요소, 시설적요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건조물문화재의 재난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 건조물 문화재, 국가지정중요목조문화재, 실태조사

1. 서 론

국민이라면 누구나 문화재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2005년 양양산불에 의한 낙산사 화재, 2008년 국보1호 승례문 방화사건 등 문화재는 자연적·사회적인 원인으로 다양한 재난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많은 인력, 시설, 환경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건조물문화재 중 국가지정중요목조문화재 158개소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난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2. 건조물문화재 안전관리 실태조사

2.1 인적요소의 실태분석

문화재의 재난관리 인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현장(소방안전관리자, 문화재안전경비인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실태조사 결과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지라)는 전체적인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즉 재난발생 전·후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외부소방(소방관서 등)이 도착하기 전에 안전경비인력을 컨트롤하여 대응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경비인력은 최소 2인1조로 구성하여 문화재 재난관리에 대한 실무와 평상시 문화재 재난관리 시설정비, 환경정비 활동

* 학생회원 ·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방재설비전공 박사수료 shj@kangwon.ac.kr

** 학생회원 ·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재해방재 석사과정 cyj_319@naver.com

*** 학생회원 ·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재해방재 박사과정 kwh@kangwon.ac.kr

**** 정회원 ·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전공 교수 bmh@kangwon.ac.kr

재난/재해 분과 발표

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둘에 대한 업무사항과 역할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전문화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2 시설적 요소의 실태분석

문화재 내 재난관리 시설은 문화재 내부(CCTV,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문화재 주변·외부(옥내소화전, 방수충설비, 호스릴소화설비, CCTV 등)로 장소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다. 현재 문화재 현장의 설비는 소방기본법의 하위법령인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문화재를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고 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즉 문화재가 다중이용업소 등 다른 시설과 동일한 시설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의 경우는 적용되는 시설의 종류는 물론 설치에 대한 개수 규정 외에도 긴급시 누구나 사용해야하는 편의성, 문화재 주변시설들과의 조화인 경관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하며, 문화재가 위치한 건축면적 외에 주변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부지면적단위로 문화재 재난관리 시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3 주변환경적 요소의 실태분석

주변환경적 요소는 외부소방환경(소방차진입로, 출동시간 등)과 주변산림 및 위험물시설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외부소방환경의 경우 소방차 진입로 주변에 하천이 흐르고 있고 진입로의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차량이 잠길 우려가 높으며 소방차 진입로 주변에 상점이 많고 좁다. 또한 비포장도로로 인해 차량진입이 상당히 어려우며 도착시간이 약 30분이상이 소요되는 곳도 많았다. 또한 위험물시설의 경우 문화재가 위치한 내부에 가스시설, 유류시설, 전기시설이 별도의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서 재난의 직접적·간접적 피해의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3. 건조물 문화재 재난관리 개선방안 도출

건조물 문화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 중 인적요소는 현장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안전경비인력)의 업무의 범위 및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마련되어 평시와 비상시 원활한 활동을 수행해야한다. 시설적으로는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방재시설 기준이 재정리 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일본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수용인원, 문화재의 활용용도, 부지면적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한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시설의 방재적인 측면 외에 비상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문화재를 어우르고 있는 자연, 지리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경관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변환경은 외부소방환경의 경우 소방차 진입로는 최소 2방향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하며, 도로는 가급적 직선으로 하고 도로의 폭은 소방차가 양방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소 5m이상의 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 내 위험물시설의 경우 별도의 내화구획된 지정장소를 통하여 보관하여 그 주변에는 위험물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문화재 활용객들에게도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호준, 백민호(2013), 중요목조문화재의 외부소방환경 실태조사 연구, 한국방재학회